

# 찬장의 두 얼굴: 공간과 구조의 맥락 읽기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I. 머리말
- II. 찬장의 구조와 제작 원리
  - 1. 대청 찬장의 구성요소
  - 2. 부엌 찬탁의 구성요소
- III. 처소에 따라 다른 찬장의 속성
  - 1. 대청 찬장 - 열린 혼성공간의 조형성
  - 2. 부엌 찬탁 - 내밀한 여성공간의 기능성
- IV. 부엌의 지위와 찬장의 근대적 변용
- V. 맺음말

## I. 머리말

그릇이나 찬을 보관하는 가구인 찬장은 보통의 기물과 달리 놓이는 공간에 따라 형식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부엌용과 대청용이 따로 있는 것이다.<sup>1</sup> 두 곳에 놓이는 찬장의 형식은 한집에서 쓰는 가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크다. 같은 종류의 기물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자못 흥미롭다. 또한 두 가지 찬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는 과정도 특기할 만한 고유성이다. 이처럼 공예품이 놓이는 처소에 따라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특질을 지니게 된 데는 그만한 연유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차이

1. 찬장을 가구 형식을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하면, 대청용은 찬장, 부엌용은 찬탁의 형식에 가깝다. 찬장은 네 기둥과 쇠목에 판재로 사방을 막아 수납공간을 만든 형식이며, 찬탁은 기둥과 층널은 있으나 밀폐된 수납공간을 따로 구성하지 않아 개방된 형식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청에도 찬탁이 놓인 경우가 있고, 부엌에도 찬장이 설치된 경우가 없지 않다. 대청용 찬장과 부엌용 찬탁은 비록 상대의 공간에 주로 놓이는 동일 기물과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두 기물을 공통적으로 지칭할 때는 '찬장'을, 구분하여 쓸 때는 대표 명칭으로 '찬장'과 '찬탁'으로 각각 부르기로 하겠다.

와 특성이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찬장의 사례처럼 같은 기능을 가진 기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제작 주체를 중심에 두고 형식의 특징을 분석하는 공예사의 일반적 연구 방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찬장의 형식은 조형의 성과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쓰임의 속성과 거기에 따른 공간 배치와 같은 수요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 실체가 파악된다는 생각이다. 형태의 구축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즉 주거환경과 공간, 제작 주체와 객체 간의 역학 관계와 성(性) 역할, 사회적 관습과 인식, 생활방식과 인체공학(Ergonomics) 등으로 사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삶의 전체상과 연동된 입체적 분석을 시도해야 비로소 그 인과관계가 해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질문화의 관점이 공예사 연구의 확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sup>2</sup>

찬장은 음식과 그릇을 사용하는 주체인 여성, 그리고 부엌이라는 처소와 직접 연관되는 기물이다. 노동의 영역과 역할을 남녀의 성차에 따라 철저히 구별 하던 근래까지, 찬장은 여성만 사용하는 세간이었다. 찬장의 형식과 위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부엌의 구조와 더불어 변화를 거듭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본 형태와 존재의 위상이 달라진 찬장은, 근대화 과정에서 생활사의 변화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예민한 자료일 뿐 아니라, 공예의 근본 원리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상이다. 또 수요 주체의 신분과 처지에 연동된 기능과 쓰임, 사용관습의 상관관계를 물질문화의 관점으로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이다. 기능과 조형, 인체공학과 젠더, 사회경제사적인 관점 등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더없이 요긴한 대상인 것이다.

특히 근대를 전후한 시기의 찬장은 부엌과 그 공간을 주관하는 여성의 사회

---

2. 물질문화를 복잡한 학술적 정의에 앞서, 물질을 매개로 향유해 온 사람의 역사로 본다면, 그 맥락을 읽기 위해 삶의 전체상과 인과론적으로 파악하는 인식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시대나 함목적성을 떠난 적이 없는 공예를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방임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인문 연구의 기초인 역사적 실상의 복원은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신분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일상과 고정된 사회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기물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뒤 놓이고 쓰인 인문적 환경까지 입체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단순한 기물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인문학적 복권이 필요한 현 단계의 미술사 연구 환경이기에 이런 시도가 더욱 긴요하다는 생각이다.

공예를 물질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는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공예는 예술 이전에 합목적성을 띤 생활 속의 기물이며, 숙련된 기술로 재료를 다루어 쓸모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공예는 문화적 성취 이전에 문명적 성과물로 볼 수 있다. 물질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공예가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양식사의 관점에서 공예가 조형의 성취였다면, 물질문화의 눈에 투영된 공예는 삶의 구체적 실상이며, 그 방향성이 궁극에 그 너머의 사람의 존재를 지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sup>4</sup> 이렇게 보면 조형에 주목해 온 양식사가 결국 형식에 제한되는 반면, 물질문화의 지향이 오히려 사람을 향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 실존하는 기물의 사례가 필수적이다. 다만 찬장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예가 극히 드물다. 특히 부엌 찬탁은 수집가의 눈길도 빗겨갈 만큼 소외된 분야이며, 부엌 구조물의 일부로 여겨져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되었다. 따라서 서천의 이하복 가옥과 같은 공예사의 현장에 사료적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것도 이런 현실에 기인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찬장 형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질문화와 사회경제사, 근대 여성사 등 인접 학문의 성과를 두루 포섭하여 분석해 보려 한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엌의 공간과 여성관, 가옥구조 등의 변인을 염두에 두고, 두 공간 사이의 형식 차이를 유발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 보겠다.

3. 이 말은 필자가 선행 논문에서 새로운 공예사 연구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한 키워드로 언급하였다. 崔公鎬, 「ワンカットの寫眞に込められた近代工芸史の原風景」, 『美術研究』第404号 (東京文化財研究所, 2011), pp. 225-240.

4. 여기에 관해서는 최공호, 위 논문: 「器-社會的 形態, 文明의 記憶」, 『かたち再考-국제학술회의』 (東京文化財研究所, 2014), pp. 255-276; 최공호, 「식기의 형태결정과 휴먼 스케일」, 『동악미술사학』, 제16호 (2014. 6), pp. 33-50 등 참조.

## II. 찬장의 구조와 제작 원리

찬장은 대청이나 부엌에 놓고 쓰는 입식가구이다. 그릇을 보관하는 같은 기능을 가진 찬장이 두 군데에 나뉘어 놓인 이유는 그릇의 사용 패턴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가족이 매일 쓰는 그릇은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의 찬탁에 얹어 두고, 드물게 쓰는 그릇은 대청이나 찬방에 따로 보관하였다. 손님이 방문하거나 집안 행사를 치르고, 철 따라 바뀌 쓰는 관습에 따라 그릇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부엌은 물론 대청 찬장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이밖에도 흥미로운 점은 형태가 그릇의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고, 놓이는 처소나 조리공간과의 거리와도 연관된다는 사실이다. 공예품의 형식과 처소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형적 완성도는 대청의 찬장이 부엌의 찬탁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 이유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 1. 대청 찬장의 구성요소

찬장이나 찬탁은 무거운 그릇을 장시간 보관하기 때문에 두꺼운 소나무나 결이 좋고 단단한 느티나무 또는 참죽나무로 기둥과 쇠목을 썼다.<sup>5</sup> 책장을 소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둥이나 쇠목의 두께도 찬장이 다른 장에 비해 2-3배 더 두꺼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판 1).<sup>6</sup> 무거운 유기나 도자기 그릇을 가득 넣어 오래 보관해야 하는 찬장이, 옷가지를 보관하는 장롱에 비해 기둥이나 쇠목 등 힘을 지탱하는 부재가 훨씬 두꺼운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다.<sup>7</sup>

찬장의 문판 중간에 가로로 동자를 질러 견고하게 구축한 것도, 문판에 무늬 결이 좋은 용목(龍木)을 써서 멋을 내는 일반적인 장롱이나 책장과 다른 점이

5. 사랑방의 책장이나, 안방에 놓고 옷가지를 보관하는 농(籠)은 가볍고 약한 오동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기둥이나 쇠목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두께를 얇게 하여 날렵하게 멋을 냈다.

6. 찬장의 기둥이 65cm, 쇠목이 39-62cm이나, 책장은 기둥이 따로 없이 축널을 붙여 그 두께가 5cm이고, 쇠목은 27cm이다. 이층옷장은 기둥이 30cm, 쇠목이 17cm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된다.

7. 조선시대 이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그릇으로 백자를 쓰게 되었으나, 계절에 따라 겨울 그릇으로 닳그릇을 쓰는 집이 적지 않았다. 1907년에 발매된 잡지는 근대 초기까지 닳그릇을 선호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류일선, 「밀천 건지기를 너무 좋아하는 일」, 『가명잡지』, 제1권 제3호, 1907년 8월, pp. 9-10.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전부터 음식을 닳그릇에 담아 먹는 풍속이 있는데, 이 풍속은 위생에 지극히 해로우니 식기는 닳그릇을 쓰지 마시오.”

다. 장롱에 비해 수납공간이 바닥으로부터 높게 형성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방에 놓이는 장롱은 온돌과 사계절의 온도 차를 견디기 위해 바닥에서 약간 띄우지만, 부엌 바닥이나 마루에 놓이는 찬장은 습기나 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통을 훨씬 높게 달았다.

부재를 결합하는 짜임에 내다지장부를 내어 견고하게 결구하고, 그 밑에 보강재를 덧댄 것도 무거운 그릇을 지탱하려는 조치이다. 구조를 보강하는 장식은 놋쇠나 백동 대신 견고한 무쇠장식을 사용하였다. 다루기가 까다로우나 단조를 거듭하여 시우쇠로 단련하면 녹이 잘 슬지 않을뿐더러 다른 재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sup>8</sup>

두 짝의 여닫이로 개폐되는 문의 크기도 옷장이나 책장에 비해서 크다. 기물을 넣고 꺼내기 편하게 배려한 것이다. 문의 개구부(開口部)를 옷장이나 책장과 비교해 보면, 옷장의 문 크기는 504×290센티미터 안팎이고, 책장이 476×262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찬장은 556×395센티미터 남짓으로 그 차이가 확연하다.

대청용 찬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경기찬장을 들 수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 유행한 경기찬장은 기둥과 쇠목의 두께를 비롯하여 구조가 견실할



도판 1. <이층찬장>, 1900년대 초, 115×52×148.2cm, 국립민속박물관(좌). <이층책장>, 19세기 전반, 78.8×38×112.9cm, 개인장(중). <이층농>, 19세기 후반, 79.3×39×117.5cm, 개인장(우).

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유물 이해 I-木家具』, 2003, p. 13.



도판 2. 전라남도 나주의 거실(국립민속박물관, 『민속유물 이해 1-木家具』,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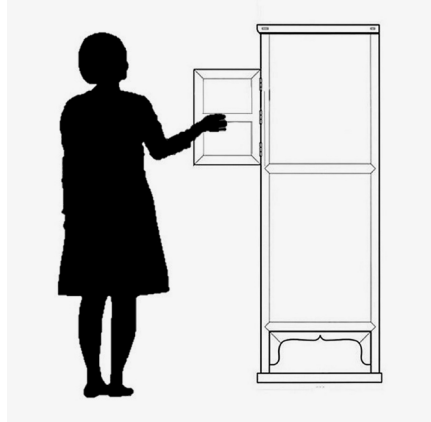
뿐 아니라, 비례미가 뛰어나고 세련된 느낌을 지니고 있다. 위 칸에는 양쪽에 수저를 넣는 서랍을 설치하여 자투리 공간의 효용과 더불어 특징적인 형식미를 갖춘 것으로 이점이 높다. 경기찬장은 1900년을 전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찬장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기찬장 형식이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발견된 사례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도판 2).

신체와의 접촉이 잦고 처소를 옮겨 가며 사용하는 소반이 사용자의 앉은키와 깊이가 연관된다면, 불박이 가구인 찬장의 기본 스케일은 사용자의 신체와 그것이 놓일 공간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었다. 조선가구가 한옥의 구조를 닮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가구의 형식이 그것을 품고 있는 집의 구조와 스케일에 수렴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구조나 기능, 세부명칭에서도 서로 공통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 네 벽을 판재로 두른 가구의 내부는 방에, 천판은 지붕에 해당하며, 기둥과 문, 머름간과 쥐벽간, 층널과 쇠목 등의 부재가 가구뿐 아니라 집에서도 공통적이다.

찬장은 정해진 위치에 두는 불박이 가구이자, 사용자가 선 자세에서 사용하는 입식가구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선과 높이 등 놓이는 처소의 공간적 특성과 연관이 깊다. 한옥의 방 천장 높이는 7.5자(약 225센티미터)가 일반적이지만, 대청마루는 10자(약 300센티미터)로 높은 편이다.<sup>9</sup> 방에 놓이는 장롱이

9. 사람의 신장을 5척으로 치고, 신장의 반인 앉은키의 눈높이를 더한 값이 방의 천장 높이로 삼고, 대청은

도판 3(위). 찬장의 휴먼 스케일.  
 도판 4(아래). 조선기구와 한옥의 인체공학적 관계.



130-140센티미터 내외라면, 찬장이 높은 대청마루나 부엌에 놓고 쓰는 이층찬장의 기본 높이는 150센티미터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대청에 찬장이 놓이면 그 위로 150센티미터 남짓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 시령을 매어 소반이나 상자 등 수납하기 어려운 기물을 보관하였다.

1900년경에 152센티미터 전후의 평균 신장을 가진 여성이 이층찬장을 사용할 때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찬장의 인체공학적 휴먼 스케일이 확인 될 것이다.<sup>10</sup> 관건은 신장 152센티미터의 여성이 찬장의 이층문을 열고 무리

신장의 두 배로 설정하였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방과 서서 생활하는 대청의 높이가 다른데, 이 수치는 머리 위로 자신의 신장만큼의 공간이 있을 때 기의 순환이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0. 조선시대 여성의 신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1893년부터 수년간 한국을 여행한 영국인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 1898년에 출간한 조선여행기 《Korea and Her Neighbours》(London, John Murray)에서는 조선 남자의 평균 신장을 163cm로 기록하였으나, 여성에 대해서는 계측하지 못하였다. 또,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이층찬장을 기준으로 여성신체를 대입해 보면, 찬장의 높이(148.2센티미터)는 조선 말기 여성의 신장과 거의 일치한다(도판 3). 여성이 팔을 수평으로 뻗었을 때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안팎이고, 팔을 내렸을 때의 팔꿈치 높이를 93센티미터 정도로 산정한다면, 90-130센티미터 사이에 설치된 이층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찬장의 기형은 사용자의 인체공학적 스케일에 수렴할 뿐 아니라, 팔을 뻗으면 천판 위에도 기물을 보관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게 배려하였음을 알게 된다. 쓸모를 목표로 제작된 기물의 기본 형태는 제작 주체 스스로 결정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도판 4).

## 2. 부엌 찬탁의 구성요소

부엌 찬탁의 기본구조와 형식은 대청 찬장과 확연히 다르다. 일정한 형식의 정형을 유지하며 공들여 만든 대청 찬장과 달리 부엌용은 찬장이라기보다 찬탁의 형태에 가깝다. 이 둘 사이의 형식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부엌 찬탁의 형식은 네 기둥과 쇠목에 판재를 사방으로 막아 수납공간을 만든 찬장에 가까운 것과 시렁을 걸치듯이 간단한 각목과 판재로 구성된 찬탁까지 다채롭다. 부엌 찬탁은 엄밀히 말하여 선반이나 시렁과 찬탁의 중간 형태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층널의 높이는 최소한 여성의 신체와 작업 동선의 범위를 넘지 않게 고려한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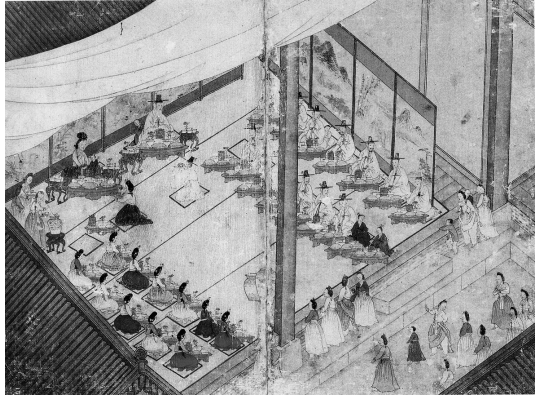
찬탁의 층널 바닥은 대를 일정하게 쪼개 조밀하게 엮어서 설거지를 마친 그릇의 물기를 말리기 쉽게 고려하였다. 문판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문판 양쪽을 판재로 밀폐하지 않고 각재를 모서리가 정면을 향하도록 틀어 성근 틈 사이로 통풍을 원활하게 유도하였다. 찬탁이 밀착된 뒷벽에는 찬탁 내부의 통풍을 돕기 위해 맞창을 내는 것도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부엌 찬탁이 이처럼 판재로 밀폐시켜 수납공간을 만들기보다 시렁에 선반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출토 인골을 조사하여 남녀의 신장을 각각 161.1과 148.9cm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남녀 각  $\pm 5.6$ ,  $\pm 4.6$ 의 오차범위가 적용되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필자는 19세기 전후의 여성용 저고리 기장을 기준으로 조선 말기의 성인 여성의 신장을 152cm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최공호, 「사진 한 컷에 담긴 근대 공예사의 원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 7 (2008), pp. 64-87 참조.

도판 5. 작자 미상, 〈회혼례도〉, 18세기, 견본 채색, 33.5×45.5cm, 국립중앙박물관.



겉치듯 개방형으로 만든 사례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쓰임의 빈도와 여성이 주로 쓰는 부엌의 밀폐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본다.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그릇은 수십여 개에 이른다. 적게는 5-6명에서 10명이 넘는 대가족의 음식을 도맡던 전근대의 부엌에서 한 끼에 사용된 그릇은 어림잡아 50-60여 개를 헤아린다.<sup>11</sup> 더욱이 성인 남자와 여성 노인에게는 일인일반(一人一盤)의 전통이 남아 있었으니, 상차림의 수는 성인 남자와 시모, 조모, 자녀, 여성의 것을 따로 보면 소반 6-7개가 보통이었다(도판 5).<sup>12</sup> 이 그릇들을 모두 올려놓으려면 찬탁이 견고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근대까지 일상의 그릇으로 쓰인 백자는 현재의 그것보다 훨씬 두껍고 무게도 많이 나갔다. 성인의 하루 식사량도 1940년대에 680그램에 달하여, 그릇의 크기도 190그램 정도를 섭취하는 현재의 밥공기보다 무려 3.6배에 달하였다.<sup>13</sup>

따라서 수시로 물기를 말려가며 하루 세 번씩 써야 하는 높은 사용 빈도가, 불편한 장식보다 수납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제작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하겠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물을 길어 와 부엌 내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찬탁마저 멀리 두어 불편한 동선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출입이 통제된 여성 전용의 내밀한 처소의 특수성도 부엌 찬탁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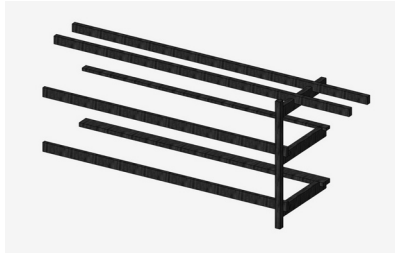
11. 가족구성원을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가정할 때, 상차림은 조부(9개), 부(9), 조모(9), 자녀(6×4), 여성(7)이 3첩반상기로 산출하면 한 끼에 소용된 그릇은 대략 50-60개에 이른다.

12. 김정운, 「집집이 고칠 것 한 가지」, 『신여성』, 3권 2호, 서울: 개벽사, 1925, p. 32, 주 26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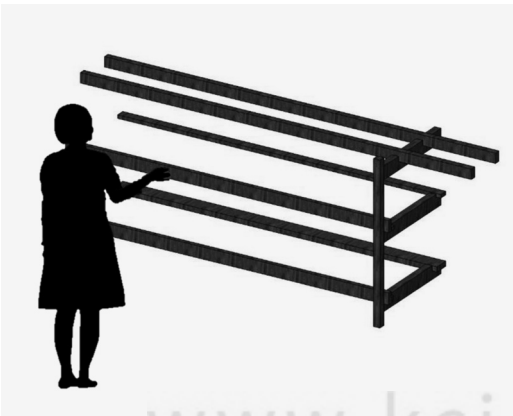
13. 통계청 한국식생활통계조사표 (2010년도) 참조.



도판 6.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주택의 부엌, 1974년 촬영.



도판 7. 서천군 기산면 이하복 가옥의 부엌 찬탁 (좌)과 구조 도면(우).



도판 8. 이하복 가옥 부엌 찬탁의 휴면 스케일.

적 형태 구축에 한몫을 거들었다고 여겨진다. 농이는 공간이 외부의 시선을 향해 열리거나 닫힌 조건에 따라 형식의 구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의 부엌은, 아궁이를 통해 난방과 조리를 겸하던 관습으로 인하여 흙을 곱게 다져서 구축한 바닥에 땀나무와 물기,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었다. 거기에 그릇과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찬탁이 설치되었다.

찬장의 형식에 속하는 것 가운데는, 충북 청원의 한 가옥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래의 제작 목적과 달리 처소를 바꾸어 기능을 새롭게 부여한 것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도판 6). 1970년대 이후에는 낡고 부서진 옷장의 일부를 적당히 잘라 내부에 시렁을 걸친 뒤에 사용한 사례도 있어 흥미롭다. 부엌의 찬탁이 대청 찬장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이다.

부엌 찬탁 가운데 특히 유의미한 사례는 서천의 이하복 가옥을 들 수 있다.<sup>14</sup> 이하복 가옥의 부엌 구조는 다른 집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북벽에 붙박이로 고정된 찬탁의 형식은 보통의 부엌 찬탁과 차이가 있다. 각재를 성글게 짜서 층널을 구성하고, 대나무를 엮어서 뒷벽의 창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 점도 다른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둥과 벽체에 각목을 짜 맞추어 결구시킨 구조와 형태는 매우 독특하다(도판 7).

구조상의 흥미로운 점은 견실한 짜임과 층을 나눈 방식과 마감, 그리고 기울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닥을 띄워 벽에 부착한 찬탁은 사용자의 동선과 키 높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높이에 구축하였고,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앞쪽을 6° 정도 기울여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였다(도판 8). 1-2층은 상시 쓰는 그릇을 보관하고 3층에는 두 개의 각목을 가로로 길게 질러 소반을 뒤집어 엮을 수 있게 하였다. 1-2층의 바닥에는 설거지를 끝낸 그릇의 건조를 돕기 위해 대발을 촘촘히 엮어서 깔았고, 뒷벽에 뚫린 통풍용 창과 맞게 하여 반찬을 보관하더라도 자연 냉장도 구실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14. 이하복 가옥의 찬탁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 집의 공예품의 성격을 분석한 별도의 논문에서 일부 다루었을  
을 밝힌다. 최공호, 「이하복의 세간들—공예사 현장의 콘텍스트 읽기」,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15.  
12 중 간행 예정.

찬탁의 규모는 길이가 200센티미터, 폭이 58센티미터로 매우 크다. 충북 청원과 충남 홍성 및 당진의 재래 부엌에 남아 있는 부엌 찬탁과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가 훨씬 크고 견실하다. 이 찬탁은 1920년대에 부엌을 증축한 사실로 미루어 이 무렵에 함께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920년대는 이하복 가문의 전성기에 해당하여 이 부엌을 사용한 가족이 어림잡아 20명을 웃돈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매일 사용한 그릇의 수는 최소 70-80여 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그릇을 겹겹이 쌓아 보관하였을 것이다. 찬탁의 큰 규모와 튼튼한 구조는 이 집안의 쓰임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이 부엌 찬탁은 수요자인 이하복의 조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고, 목재의 굵기와 구조를 고려하여 구축하였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찬탁을 주로 사용할 내실 여성들의 동선을 배려하여 바닥에서 78센티미터를 띄워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둥재를 바닥에서 띄워 걸구하는 기법이 무게를 지탱하기에 불편하고 안정감이 떨어짐에도 이를 감수한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찬탁의 하단부의 공간이 열려 있어 좁은 부엌의 공간과 동선의 활용에 유리하고, 습기를 차단할뿐더러 뒤창의 공기 흐름을 돕는 등 음식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지혜가 돋보인다. 특히 기둥의 다리를 띄워 구축한 지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찬탁 주변을 오가야 하는 사용자를 배려한 탁월한 안목이라고 할 만하다.

기둥과 벽체에 고정된 구조는 부엌을 증축하던 당시에 미리 예측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3단으로 특히 굵은 소나무 각목을 써서 기둥에 걸구시킨 형태는 간결한 각목 몇 개로 제작하였으나 과거와 다른 근대적 구조미를 느끼게 한다. 부엌의 증축 단계부터 쓰임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비록 검절이 몸에 밴 지사형 인물의 가문이라고는 하나 80만 평(약 264만5천 제곱미터)을 소유한 대지주였던 이하복 가(家) 역시 부엌 찬탁은, 대청 찬장과 대비되는 시렁형 구조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

### III. 처소에 따라 다른 찬장의 속성

#### 1. 대청 찬장 - 열린 혼성공간의 조형성

부엌 찬탁과 대비되는 대청 찬장의 형식적 특징은 대청의 공간적 특수성과 연관이 깊다고 본다. 대청은 전통 한옥에서 방과 방을 연결하는 마루의 기능 외에도 간단한 집안일을 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의 기능을 담당한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규모를 갖춘 가문에서는 남성의 공간으로 마련된 사랑채가 접객공간의 중심 구실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의 안채에도 대청을 따로 마련하여 안주인의 접객공간으로 사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sup>15</sup>

그러나 대부분의 중류층 가옥에서는 별도의 사랑채를 갖추지 않아 대청이 접객과 집안일을 겸하는 요긴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sup>16</sup> 서민의 가옥에서는 방과 방을 연결하는 절충 공간에 마루를 깔아 대청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대청은 이처럼 다양한 용도를 지녔을 뿐더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이 아니면 갖추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대청은 실내의 다른 처소와 달리 가족 이외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기능으로 인하여 남녀노소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를 아우르는 혼성의 공간이 되는 셈이다. 또한 내실에 연결되었으나 벽과 문으로 차폐된 방과 다르게 밖으로 열린 개방적 속성을 띠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대청 바닥도 온돌 대신 마루를 깔아서 생활공간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sup>17</sup>

찬장은 한 곳에 붙박이로 놓고 선 자세에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선과 천장 높이, 밖을 향해 개방된 구조 등 놓이는 공간과의 상관성이 깊을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에 놓이는 장롱보다 찬장의 높이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밖으로 열린 개방형의 대청은 거기에 놓이는 기물의 형식과 조형적 요소를 결정하는 데 깊이 개입되었다고 여겨진다. 기능과 장식의 역학관계는

15. 윤일이, 『한국의 사랑채』, 서울: 산지니, 2010, pp. 236-242.

16.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대우학술총서 425), 서울: 아르케, 2000, p. 65.

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 고치는 책 1-대청과 방』, 2013, p. 43.

의례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1차 기능에 충실한 기물에 장식은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sup>18</sup> 농기구나 기물을 깎고 다듬는 연장에 무늬를 그린 사례가 적은 반면, 2차나 3차 기능을 가진 의례용품이나 혼례용품에는 화려한 장식을 가득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기능이 약화되면 장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기능과 장식의 역학관계는 이와 같은 관성을 지닌 탓에 흥미롭다.

대청용 찬장은 이러한 대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밖으로 열린 혼성의 공간에 어울리는 형태와 완성도를 지니게 되었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1차적 기능 외에도 맵시를 발휘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 대청의 찬장이 기능과 장식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은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과 긴밀하다.

제작 주체의 신분도 대청용은 솜씨 좋은 장인이, 부엌용은 각자의 솜씨대로 스스로 만들어 쓴 사례가 많았다고 판단된다. 대청 찬장이 형식의 정형성을 갖춘 반면 부엌용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집집마다 다른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본다.

## 2. 부엌 찬탁 - 내밀한 여성공간의 기능성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부엌은 음식과 난방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여성의 내밀한 공간으로서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면서도 겉으로 당당히 드러내기 어려운 여성만의 폐쇄된 공간이었다. 남성의 접근이 자유롭지 않았던 폐쇄적인 부엌의 속성은 가족 구성원의 끼니와 건강을 책임지는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허술하고 기능적인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 사회를 주도한 남성들이 가진 여성과 음식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난방수단의 특수성에 직접 결부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18. 기능의 속성을 3단계로 구분해 보면, 1차 기능은 기물을 제작하는 도구에 해당하고, 2차 기능은 1차 기능을 가진 도구로 만든 밥그릇이나 수저, 소반 등 쓰임이 주목적인 생활기물을, 3차 기능은 직접 쓰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의례용품에 해당하며, 왕실의 권위나 위계를 표상하는 기물, 또는 민간의 혼례용품이 여기에 속한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부엌에 대한 기피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한다”라는 『맹자』 양혜왕(梁惠王)조의 내용은, 조선 중기의 문인 송강 정철의 노모를 위한 부엌 출입 몇 번을, 단지(斷指)에 비유하며 효성을 칭송한 대목과 함께 부엌을 기피하는 유가의 뿌리 깊은 관습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다.<sup>19</sup>

조선 사대부의 사유와 삶의 태도를 지배한 필독서인 『논어』에도, “음식과 기물에 관한 일은 유사(有司)의 일이다”라 하여 세간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유학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논어를 매일 식전에 읽지 않고는 조반을 들지 않았다고 할 만큼 그 가르침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조선 성리학자들의 사유태도가 기술과 여성에 대해 본질적인 편협인식을 널리 유포한 것이다. 부엌의 지위가 가옥의 공간적 위계에서 낮게 설정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하였다고 여겨진다.

이 관습의 잔영은 근대까지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여성들은 쉬는 시간에도 휴식공간이 따로 없어 주로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몸을 씻는 일도 겸하였기 때문에 내외관이 확고하던 전통사회의 분위기에서 금남의 유습이 더욱 고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가족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접근이 금지된 여성만의 내밀한 공간이 바로 부엌의 실체였다.

같은 여성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대부가에서는 부엌일을 하녀에게 맡겨 두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 “요즈음 풍속에는 사대부의 부인들이 밥 짓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sup>20</sup> 반면에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의 소임이 부엌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사일과 길쌈, 세탁 등의 중노동을 모두 감당하였다. 전통사회의 부엌의 위상이 낮고 소외된 곳으로 인식된 것이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된다.

여성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던 부엌의 처소적 속성이, 거기에 놓고 쓰인 가구의 형식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밖으로 열린 개방형 공간의 대청 찬장과 달리, 부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폐쇄형 공간답게 의장이나 품격의 고려 없이 철저히 기능에만 충실

19. 權尙夏, 『寒水齋集』 제32권, 墓表

20. 이덕무, 『사소설』, 김중권(역), 서울: 명문당, 1987, p. 219.



도판 9. 신윤복, 〈주사거배〉, 18세기, 지본담채, 28.2×35.2cm, 간송미술관.

하게 만든 것이다. 대청과 부엌 찬장 형식의 편차는 곧 당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차와 비례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개방형 부엌으로의 변화와 함께 여성관의 변모가 부엌의 성격과 찬장의 형식을 바꾼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대청과 부엌의 찬장이 가진 처소의 속성에서 벗어난 특수한 사례가 눈에 띄어 흥미롭다. 술국을 파는 주막의 한때를 실감나게 묘사한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舉盃)〉(도판 9)의 배경에 대청용 찬장이 등장한다. 술과 아궁이가 묘사된 부엌에서 주모가 수발을 들고 있고, 그 옆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행인이 화의(畫意)의 핵심이지만, 뒤편의 배경에는 찬장이 자리 잡고 있다. 여염집의 대청이나 농일 법한 찬장을 버젓이 들여 놓은 모양이 주막이라는 공간의 격에 어울리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공간이 남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주막이고, 부엌이면서 동시에 밖으로 열린 대청의 기능을 가진 접객 공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주모는 대청과 부엌을 절충한 술청에 손님을 위해 맏시 나는 대청용 찬장을 들여 놓는 상업적 수완을 발휘한 셈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주막인 만큼 여벌의 그릇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염집 여성과 달리 주모는 내외관습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특수 직업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상기해 준다.

이처럼 같은 부엌이라도 밖으로 열린 특수한 공간에서는 대청의 찬장 형태

21.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서울: 살림지식총서(157권), 2005, pp. 22-62 참조.

를 선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가구의 형식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개방된 공간에 놓이는 기물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에 놓고 쓰는 것보다 시각적 효과에 신경을 쓰는 것은 굳이 논증이 필요 없는 상식적인 일이다.

이처럼 찬장이라는 소소한 기물 한 점이, 놓고 쓰는 처소와 쓰임의 빈도, 공간의 주체에 연관된 사회적 인식과 관습 등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관계의 진실들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또한 부엌에 놓이는 찬탁이 대청으로 이동하면 쓸모의 비중이 낮아지지만, 부엌 찬탁보다 오히려 정교한 완성도를 가지는 역설적인 결과도 흥미롭다. 대청이 밖으로 열린 혼성의 공간이고, 부엌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남성의 접근이 쉽지 않는 ‘금남의 구역’이라는 특성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IV. 부엌의 지위와 찬장의 근대적 변용

대청과 부엌으로 나뉘어 각각의 위치에서 일상에 기능하던 찬장은 근대기의 생활개선 정책에 따라 그 형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신학문과 신식문명의 유입, 제도의 확산, 교통의 발달과 기계의 유입 등 근대적 기획들이 여성의 직무와 노동공간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사회개조론의 최우선 과제가 생활개선이었고, 생활개선에서 특히 중시되었던 것은 여성의 본업인 의복과 부엌의 개량이었다.<sup>22</sup>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비좁고 습하여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 부엌의 진면목이었다. 1920-30년대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엌의 모습은 ‘룻구멍만 한 부엌에 맷돌과 땀감, 옷가지가 영켜 있는 습한 곳’이었다.<sup>23</sup>

생활양식의 개량은 의식주의 변화를 견인하였음은 물론, 1970-80년대에는 결국 부엌의 공간을 실내로 통합시키기에 이르렀다. 부엌이 실내로 이동할 수

22. 문명희, 「민족의 알레고리로서 음식과 사적 노동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 여이연, 2004), p. 167.

23. 최서해의 <탈출기>의 한 대목을 문명희, 앞 글, p. 168에서 재인용.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인은 난방수단에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도 난방과 조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청용 찬장과 부엌 찬탁의 기능과 형식이 싱크대로 대체되었으며, 부엌과 대청으로 이원화된 찬장의 형식도 급속하게 해체된 점이다. 이로써 온돌의 사용과 더불어 실내외로 분리되었던 방과 부엌의 공간이 비로소 실내로 통합되었다(표 1).

시대	부엌 형태	변화 요인
선사시대	실내 일체형	단일구조의 주거, 실내 중심에 화덕
삼국시대-근대	실외 분리형	온돌의 사용 이래 방과 부엌이 분리
현대	실내 통합형	난방수단의 변화에 따라 실내로 이동

표 1. 부엌 구조의 변천

주거 환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하다. 부엌의 실내 이동은 여성의 대외 활동과 지위 변화를 가속시킨 동력이었다. 1920-30년대의 부엌은 상하수도 시설, 취사도구, 세간, 식습관에 이르는 모든 것이 전 근대적이었으나, 신여성들이 학교를 비롯한 공식기관의 기숙사 생활을 통해 근대적 부엌 공간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실습과목을 통해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게 되면서 부엌의 주체인 여성 내부에서 변화의 열망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1920년대의 여성잡지에서는 부엌을 '생지옥'으로 표현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으며,<sup>25</sup> 좁은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상을 차리는 과정의 불합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비판하는 기사도 실렸다.<sup>26</sup>

조선 녀자의 일로는 부엌에서 하로 세때의 음식치닥거리 그야말로 일종의 큰일입니다. 그런 중에도 밥상을 여럿 늦는 것만은 참말 녀자의 노력을 공연히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만흔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님상 시어머니상 시집 조부모가 계시면 그도 따로, 시동생들의 상, 며슴상 그러고도 아녀자들까지는 그나마 상천신도 못가고 ... 한녀름 더운때 한겨울 추울때 일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24. 문명희 (2004), p. 178.

25. 황봉희, 「생지옥」, 『신여성』 3권 1호, 서울: 개벽사, 1925, pp. 21-22.

26. 김정운, 「집집이 고칠 것 한 가지」, 『신여성』 3권 2호, 서울: 개벽사, 1925, p. 32.

주택 개량 등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내부에서 개량의 열망이 강렬하게 작동한 것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1930년대의 소설, 『행복에의 흰 손』에는 마루에 놓인 뒤주를 비위생적이고 꼴사납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sup>27</sup>

그렇지 않아도 마루에다 뒤주를 두고, 그 우에다는 용충항아리뿐 아니라 반은 찬장처럼 음식 그릇도, 그냥 올려놓아 둔다. 파리가 그 곳을 중심으로 떠나지 않는다. … 대청이란 조선가옥에서는 거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광의 일부로 부엌의 일부로 싸이는 것은 첫째 불결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눈의 띄이는 개량할 점이다.

비록 소설의 내용이지만 당시의 주택개량과 생활개선에 대한 분위기를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청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거기에 놓인 가구의 비위생적인 생활관습을 비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1930년대를 전후한 사회 개조의 성과와 맞물려 찬양회 같은 여성 단체가 ‘이목구비와 사지오관에 차이가 없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차별 받은 것은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깨우침을 토로한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sup>28</sup>

근대의 부엌은 1960년대 이후 10여 년간에 걸쳐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주거 형태의 변화가 부엌의 구조를 바꾼 주된 요인이었다. 전통적 식습관이 바뀌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도시형 개량주택이 등장하면서, 난방과 조리를 위한 연료가 땔나무에서 연탄으로 바뀌고, 조리용으로는 석유풜로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방과 분리된 부엌에 별도의 아궁이를 설치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sup>29</sup>

아파트의 등장은 난방수단의 변화를 견인한 동력이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부엌이 실외에 별도로 위치하던 화장실과 함께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땔감을 대신하여 연탄이 난방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다

27. 이태준, 『행복에의 흰 손』, 서울: 서음출판사, 1939; 문영미, 앞 글, p. 182에서 재인용.

28.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 103.

29. 함한희 (2005), pp. 35-38.

만, 1960-70년대의 초기 아파트에서는 화장실을 복도 한 칸에 공용으로 따로 떼어 설치했다가 점차 실내로 들어오게 된다.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는 시점과 실내의 부엌에 싱크대가 설치되는 과정이 맞물려 있다. 사용한 물을 버리는 배수장치가 배관을 통해 연결되면서 가능해진 변화였다. 주택개량의 과도기에는 개수대 밑에 물통을 따로 놓아두었다가 버리기를 반복하는 절충적인 과정도 있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부엌의 공간 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근대의 개량주택의 등장과 더불어 실내로 진입한 부엌의 위상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찬장의 형식과 구조도 함께 바뀌었다. 거실과 부엌의 거리가 하나의 공간 내에 통합되면서 대청용과 부엌용으로 구분되던 찬장의 형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통합형 찬장으로 변화하였으며,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서구형 라이프스타일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과 부엌의 공간적 지위의 격상이 직접 연동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근대의 생활개량을 거쳐 부엌이 거실과 방에 통합되면서 대청의 찬장과 부엌의 찬탁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형식의 두 가지 찬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은 전통적 가옥 내부 공간들 사이의 격차가 사라지는 과정과 일치한다.

## V. 맺음말

같은 집안에서 두 곳에 위치한 찬장의 형식 차이에 주목하여,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나아가 근대화 과정에서 그 형식과 놓이는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물질문화의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형식의 결정에 개입하는 요소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쓸모와 수요 주체의 신체조건, 동선과 사용관습으로 파악되었다. 두 가지 형식에 개입된 공통 요소는 사용자의 신체조건과 사용관습이며, 놓이는 처소에 따라 형식이 나뉜 것은 사용 빈도와 공간의 특성으로 분석된다. 매일 쓰는 그릇은 부엌에 두고 1차 기능에 충실하게, 가끔 쓰는 그릇은 대청에 두고 보관의

안정성과 시각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여기에 금남의 공간인 부엌의 폐쇄성과 안밖으로 개방된 혼성의 공간인 대청의 청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열린 혼성의 공간인 대청의 찬장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생활관습에 따라 각재와 판재를 짜 맞추고 정성들여 맵시를 내었으며, 책장과 옷장처럼 기본적인 정형을 이룬다. 대신 부엌의 찬탁은 그릇과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충족할 형태로 제작하였다. 제작의 주체도 대청용은 전문 장인이, 부엌용은 각자의 솜씨대로 스스로 만들어 썼다고 판단된다. 부엌 찬탁의 부정형은 가족 내의 남성조차 접근이 어려운 내밀한 폐쇄형 공간답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차적 기능에만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대청 찬장이 형식의 정형성을 갖춘 반면, 부엌용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집집마다 다른 것도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대청용 찬장은 가족 전체는 물론, 대문과 마당으로 연결되는 동선과 거실의 기능을 겸하던 특성으로 인해 외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재와 각재를 정성껏 결구하여 내부의 그릇이 보이지 않게 차단하고, 가세의 면모도 시각화할 목적이었다.

두 곳의 찬장에 적용된 구조의 차이가 조리공간과의 거리와도 연관이 깊다고 본다. 가끔 쓰는 대청의 찬장은 수납공간에 문을 달아 보관상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였고, 매일 쓰는 부엌 찬탁은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 배려하여 시령의 형식을 택하였다고 하겠다. 놓이는 청소와 형식의 상관관계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방된 대청의 찬장이 밀폐된 구조를 가진 반면, 폐쇄형 공간인 부엌의 찬탁은 그릇이 그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라는 역학관계가 자못 흥미롭다.

딸나무를 태워 난방과 조리를 겸하던 열악한 부엌 환경이 1930년대의 주택 개량을 계기로 크게 개선되었고, 1980년대에는 농가주택의 부엌까지 실내로 이동하게 되었다. 대청과 부엌이 실내로 통합되면서 공간과 기능에 따라 나뉘어 서로 보완하던 찬장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성 역할과 노동조건 등이 생활개선의 흐름 속에서 찬장의 형식과 구조, 위치와 함

계 달라진 점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공예품의 형식과 변화가 그것을 만든 제작 주체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축으로 하여 공간의 속성을 포함하는 생활관습과 사용 주체의 일상, 신체의 조건과 여성성 등 술한 변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소한 일상 기물에 불과한 찬장의 형식이 수요 주체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동하여 변화를 거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동안 공예품의 형식이 제작 주체의 창의적 성과로 간주해 온 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가 '평범한 그릇 하나가 우리 일상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주제어

대청 찬장(living room cupboards), 부엌 찬탁(kitchen cupboards),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openness and closeness of the space),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여성의 사회적 지위(the position of women in society)

투고일	2015년 11월 24일	심사일	2015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9일
-----	---------------	-----	---------------	-------	---------------

## 참고문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 고치는 책I-대청과 방』, 2013.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유물이해I-木家具』, 2003.
- 김정운, 「집집이 고칠 것 한 가지」, 『신여성』, 3권 2호, 서울: 개벽사, 1925.
- 문명희, 「민족의 알레고리로서 음식과 사적 노동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역음), 여이연, 2004.
- 윤일이, 『한국의 사랑채』, 서울: 산지니, 2010.
- 이덕무 저, 김종권 역, 『사소설』, 서울: 명문당, 1987.
- 이태준, 『행복에의 흰 손』, 서울: 서음출판사, 1939.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대우학술총서 425), 서울: 아르케, 2000.
- 최공호, 「식기의 형태결정과 휴면 스케일」, 『동양미술사학』, 제16호(2014. 6), pp. 33-50.
- \_\_\_\_\_, 「이하복의 세간들-공예사 현장의 콘텍스트 읽기」, 『미술사연구』, 제29호(2015. 12).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올아카데미, 2005.
- 함한희, 『부역의 문화사』, 서울: 살림지식총서(157권), 2005.
- 황봉희, 「생지옥」, 『신여성』, 3권 1호, 서울: 개벽사, 1925.
- 權尙夏, 『寒水齋集』, 제32권, 墓表.
- 崔公鎬, 「ワンカットの寫眞に込められた近代工芸史の原風景」, 『美術研究』, 제404号(東京文化財研究所, 2011), pp. 225-240.
- 崔公鎬, 「器-社會的 形態, 文明의 記憶」, 『かたち再考-國際學術會議』(東京文化財研究所, 2014), pp. 255-276.

## Abstract

# The Two Faces of Cupboards: Reading the Context of Space and Structure

Gongho Choi

Even though all the cupboards are to keep bowls and side dishes, kitchen cupboard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living room cupboards. The differences stem from their different usages and the closeness and openness of the space. Especially, cupboards vividly show their close connection with the socioeconomic and class changes of the women, who use the kitchen and its space. If we could figure out its liberal art environment, such as how they are made, placed and used, its value goes beyond its normal range.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since the study of the current art history requires reviving its original state of the liberal art. The craft is a multi-purpose object in our daily lives as well as a form of art and it is important to make something useful by using resources with trained hands. In other words, the craft can be seen as an achievement of the civilization rather than a cultural product. That's because they look more colorful seen from the viewpoint of the material culture. They are an achievement of the shaping seen from the viewpoint of the pattern history. They are also the actual reality and even go beyond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human beings when they are seen from the viewpoint of the material culture. It's an ironic experience to realize the material culture is facing human beings while the pattern history, focused on shaping, is limited in the forms.